유튜브 음악방송을 진행 중인 이범학

실시간으로 만나는 유튜브 음악다방

이범학의 화사랑

'이범학의 화사랑'은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고양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되는 음악방송이다. "내 사랑 굿바이 굿바이~"를 외치며 소녀들의 마음을 훔쳤던 가수이자,
고양시민인 이범학이 진행을 맡았다. 일명 '범디(범학 DJ)'가 실시간 채팅을 통해 올라오는
신청곡, 사연 등을 소개하며 청취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한다.

글. 김예지(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 주무관)

'이범학의 화사랑'은 어떤 프로그램?

'이범학의 화사랑'은 방송 시작 이후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고양시를 대표하는 음악방송으로 자리잡고 있다. 방송을 통해 친해진 청취자들끼리 서로 안부도 묻고 지인들에게 홍보도 해준다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만남'에 목마름을 느낀 이들에게 '이범학의 화사랑'은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듣고 이야기하는 공간인 것이다.

'화사랑'은 '화롯불처럼 따뜻한 사람들과의 랑데부'라는 의미이자 방송 촬영지인 풍동 백마 화사랑 카페를 뜻한다. 이곳에 방문하면 DJ가 눈맞춤을 하며 직접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주니 옛 음악다방이 따로 없다.

또한, DJ가 방송마다 LP 음악을 선곡해 7080세대에는 그때 그 시절 감성을, 젊은 세대에는 레트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잘 나오던 LP 음악이 방송 중 튕긴 적도 있었으나, DJ의 재치 넘치는 멘트로 청취자들과 한바탕 웃고 넘겼다고.

'이범학의 화사랑'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신구의 조합이다. 중장년층에게 뜨거웠던 '음악다방'을 MZ세대의 가장 친숙한 플랫폼인 '유튜브'와 결합한 점이다. 방송 제작진들도 신구의 조화를 이룬다. 제작진 절반은 7080세대, 청년인턴을 포함한 나머지 절반은 MZ세대이다. 이들은 여러 세대의 음악을 함께 선곡하고, 프로그램 구상도 하며 손발을 맞춰 가고 있다.

방송 진행을 맡은 이범학 DJ는 "우리 방송은 청취자분들의 신청곡 위주로 운영된다. 그러니 곧 청취자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의 PD인 셈이다"라며 시청자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서 그는 "고양시에 산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참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평생 살아가지 않을까 싶다. 애정하는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을 맡게 돼 영광이고 보람차다"며 "무엇보다 방송 진행이 너무나 즐겁다. 코로나 사태로 관객들과 소통할 기회가 줄어 아쉬웠는데, 실시간으로 시민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함께 음악을 듣는 일이 매일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음악방송

고양시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는 '이범학의 화사랑'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하는 청년인턴 박현호 씨는 "사실 예전에는 7080세대 노래를 잘 몰랐고 딱히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방송 운영을 함께하며 과거의 주옥같은 노래들, 명가수들을 자연스레 알게 됐다"며 "덕분에 부모님과의 대화 주제도 더욱 풍성해졌고, 또래보다 음악적 지식이 넓어졌음을 느끼게 됐다. 또한, 음악뿐 아니라 고양시의 여러 소식, 아름다운 풍경 등을 엿보면서 더욱 애정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년인턴 이지연 씨는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을 계기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초반엔 생방송이라 실수할까봐 많이 긴장했는데 지금은 매일 4시가 기다려질 만큼 '이범학의 화사랑'을 제대로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학의 화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네 인생도 라이브이다. 생방송이 무사히 끝나며 안도의 숨을 쉬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삶도 해피엔딩으로 향하고 있기를 바라게 된다. 오늘 오후 4시, '이범학의 화사랑'을 들으며 함께 해피엔딩으로 향해보면 어떨까.

유튜브 라이브 음악방송 '이범학의 화사랑'

방송시간 평일 오후 4시 ~ 6시
채널 고양시 유튜브

고양시 유튜브 바로가기